

가물막이 걷어냈는데 동천 또 넘쳤다...부산시 원인분석도 제대로 안돼 관련 대책 시급

국제신문 김진룡 기자 dy1234@kookje.co.kr | 입력 : 2020-07-26 19:48:10

부산지역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심 하천인 동천이 또 넘쳤다. 부산시는 지난 10일 폭우가 쏟아진 뒤 동천에 설치됐던 가물막이를 철거했지만, 하천 범람을 막을 수 없었다. 저지대 하천의 범람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6일 부산 남구, 부산진구, 동구 등에 따르면 지난 23~24일 부산에 내린 폭우로 동천이 범람하자 인근 상가, 주택, 차량 등의 침수 피해 300여 건이 접수됐다. 특히 지난 10일 내린 비로 인한 침수 피해가 채 복구되기 전에 또 동천이 범람하면서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당시에 동천 범람으로 수십 가구와 수백 대의 자동차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 동천이 도심을 가로지르는 하천이다 보니 인근 주민의 불안감이 가시지 않는다. 동구 주민 김모 씨는 “그동안 아무리 비가와도 이렇게 동천이 넘쳐흐른 적은 없었다. 비가 올 때마다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느냐”고 하소연했다.

앞서 동천 범람 이후 전문가단체인 119토목구조대가 현장 조사를 펼친 결과 시의 동천 생태하천복원 사업으로 가물막이가 설치돼 있어 바다로 흐르는 통수 단면이 좁아졌고 만조까지 겹쳐 하천이 범람한 것으로 판단했다. 가물막이는 동구 자성대노인복지관 인근 동천에서 ‘ㄷ’자 형태로 설치돼 있었는데 하천 폭 50m 정도 가운데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시는 동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해 기존 5만 t의 바닷물을 유지용수로 쓸 수 있게 설계된 관로와 펌프장을 25만 t으로 확장하는 공사를 위해 가물막이를 설치해왔다.

시는 지난 10일 이후 해당 가물막이를 철거했지만, 또 동천이 범람한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 10일과 이번에 내린 비로 수영강 하류인 해운대구 우동 지역 일부도 물에 잠기면서 부산지역 저지대 하천의 범람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대 주기재(생명과학과) 교수는 “지역 하천의 물순환 체계를 기후 변화 시대에 맞춰 대비해야 한다”면서 “물순환이란 관점에서 볼 때 동천 유역의 저류 기능을 확대하거나 물흐름 자체를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저지대 하천 범람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시 송양호 물정책국장은 “만조 시간대 엄청난 양의 폭우가 내리다 보니 도심과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이 바다로 빠지지 않았다. 시에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저지대인 네덜란드 벤치마킹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